

# 골다공증 치료 함께 해야 추가 골절 위험 줄일 수 있어

## 건강 바로 알기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

박지훈

광주기독병원 정형외과 진료과장

#. 81세의 여성분이 한 달 간 지속되는 허리의 통증으로 내원했다. 다른 의원과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시행했으나 약간의 통증만 감소했을 뿐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했고, 걷기가 힘들어 휠체어를 탄 채 병원을 방문했다. 환자와 보호자는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다고 하며, 디스크 문제가 아닌지 정밀검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신체검사상 아래허리의 통증과 더불어 동일 부위의 타진통(두드렸을 때 악화되는 통증)이 관찰됐다. 환자와 보호자에게 척추의 압박골절이 의심됨을 설명하고, 다친 적이 없는지 다시금 물었다. 환자는 한 달 전 집에서 넘어진 적이 있음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환자는 그 정도 넘어진 것으로 골절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골절 진단을 위하여 MRI를 시행하였고 척추압박골절이 확인되었다. 골다공증검사 상 심한 골다공증이 확인됐으며 치료를 위해 척추보조기 착용 및 척추성형술을 시행했다. 3개월이 지난 뒤 특별한 후유증 없이 척추골절은 완치됐으며, 현재도 골

골밀도 줄고 뼈 미세구조 약화  
고관절·손목·척추 가장 많이 발생  
보조기·약물·주사 3개월 치료  
척추체 붕괴면 '척추성형술' 시술  
갑슌·비타민D 섭취...근력운동도

다공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의학의 발전에 따라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노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는 아직 수명의 연장을 따라가지 못해 많은 노년층이 노인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골다공증도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노화와 호르몬의 변화에 의해 골밀도가 줄어들고 뼈의 미세 구조가 약화되는 질환이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악화된 뼈는 가벼운 외상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골다공증성 골절이 가장 잘 발생하는 부위는 고관절, 손목 그리고 척추이다. 고관절과 손목의 골절은 극심한 통증과 부종, 사용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에 환자가 즉각적으로 병원을 찾아 빠른 진단 및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의 압박골절 경우 통증이나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ज्यादा나 타박으로 오해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다.

하지만 척추의 압박골절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는다면 척추체의 붕괴 및 이로 인한 척추 변형으로 인

해 골절의 회복 후에도 지속되는 허리통증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엉덩방아를 찧는 가벼운 외상에도 발생=척추의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은 매우 가벼운 외상에도 발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길이나 집에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찧는 정도의 외상에 발생하며, 드문 경우에는 허리를 꺾거나 돌리는 간단한 동작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다. 심지어 차량을 타고 이동 중 방지턱을 넘을 때 골절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 특히 골다공증의 발생률이 더 높은 여성의 경우에는 가벼운 외상 후 발생한 허리의 통증을 간단히 넘기면 안 된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대부분 가벼운 외력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척추의 앞부분인 전주(前柱)에만 골절이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신경의 손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골절로 인한 척추체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허리를 움직이거나 기침을 하는 등 복압이 상승할 때 통증이 유발된다. 또한 통증이 있는 허리 부위를 문을 노크하듯이 가볍게 두들기면 속에서 울리는 듯이 악화되는 통증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척추압박골절은 MRI를 이용해 진단하거나, CT와 뼈스캔을 동시에 시행해 진단할 수 있다. 이 중 MRI가 골절과 더불어 주변 연부조직 손상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 더 추천되는 검사법이다.

◇척추성형술=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다른 부위의 손상이 없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척추보조기를 이용하여 척추체의 붕괴를 막고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 통증을 조절한다면 약 3개월 정도에 걸쳐 회복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광주기독병원 박지훈 정형외과 진료과장이 환자에게 척추 골절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 제공>

이와 같은 치료에도 불구하고 척추체의 붕괴가 빠른 속도로 일어나거나 통증이 극심하다면 '척추성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할 수 있다.

척추성형술은 바늘을 골절된 척추체에 삽입한 뒤 골시멘트를 척추체 내로 주입하는 시술로서 부분 마취만으로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다. 척추성형술이 뼈를 붙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척추체내의 골시멘트가 척추체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게 막아주고 뼈의 흔들림을 줄여서 통증을 감소시켜 준다.

골다공증성 척추골절이라고 모든 경우에서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척추의 중간과 뒷부분인

중주(中柱)와 후주(後柱)를 침범하는 신경손상을 동반한 방출성골절이나 후방인대근 손상의 경우에는 척추보조기만으로는 안정성을 얻을 수 없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치료 시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추가 골절 위험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골절의 완치 후에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골다공증 약제를 꾸준히 투여해야 한다. 또한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 갑슌과 비타민D를 섭취하고 적절한 근력운동을 통해 척추를 보호해 줄 허리 근육을 단련해야 한다. /채희종 기자 chae@

## 전남대병원,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 성공 개최

국내외 심장학 전문가·기관 참석  
심포지엄·강연 등 최신 지견 교류

전남대병원이 최근 3일간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1 제19차 광주국제심장중재술 심포지엄(GICS)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사진>

전남대병원 심장센터 주관으로 매년 6월 열리는 GICS는 심혈관계질환 환자의 치료를 위해 국내외 의료기관 및 의료전문가들과 최신 지견 및 의료정보를 교환하고자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제학술회의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 급성심근경색증연구팀의 사토시 야수다(Satoshi Yasuda)·미국 시카고대학의 로스 밀너(Ross Milner)·중국 길림대학의 빈 리우(Bin Liu)·영국 런던대학의 존 마틴(John Martin) 교수를 비롯한 독일·이탈리아·스페인·캐나다·홍콩·싱가포르·인도네시아·이스라엘·체코·타이완 등 세계 14개국의 석학 79명이 참석했다.

학술회에서 전남대병원을 비롯해 중앙대병원·서울성모병원에서는 심장병 환자 4명의 시술 장면



을 비디오 녹화하여 소개했다.

그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게 미국 특허 등록 및 식품의약품 안전처 임상 시험 승인을 받은 '타이거 레블루션 스텐트'를 성공적으로 삽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회 중에 KAMIR-JAMIR 심포지엄·Korea-Mayo 심포지엄·Korea-London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가 간 활발한 정보 교류 및 강의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의 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심장학 명의를 포함한 전공·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인 750여명이 참석해 40여개의 포스터 전시와 구연발표 등이 이뤄졌다.

한편 광주국제심장중재술심포지엄(GICS)은 지금까지 중재적 심장학에 대한 국내외 학술교류를 통해 의료 기술 및 연구 수준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내년으로 20회를 맞이하는 GICS는 앞으로 전남대병원 및 광주의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전남대 치전원, 황현식·오희균 교수팀 일본학회서 '선수술' 공동강연 큰 호응

전남대 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원재)의 '선수술' 명성이 일본학회에서 다시 한번 입증됐다.

전남대 치전원 오희균 구강악안면외과 교수와 교정과 황현식 명예교수가 최근 이틀간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양악수술의 미래, 선수술'이라는 주제의 일본학회연례학술대회에서 선수술 공동 강연으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선수술은 양악수술 전에 교정치료를 하지 않고 악골과 치아이동을 정확하게 예측해 약교정수술을 먼저 시행하고 급속 치아교정 치료를 함으로써 수술 후 단기간 내 균형 잡힌 얼굴과 고른 치아 배열을 끝내는 치료법이다. 따라서 선수술은 기존 양악 수술 등 약교정수술법에 비해 교정치료 기간을 현저히 줄일 수 있어 환자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높다.

전남대 치전원은 아시아 구강악안면외과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는 오희균 교수와 황현식



황현식 교수

오희균 교수

명예교수가 팀을 이뤘으며, 도호쿠 대학에서는 다가하시 교수와 수가와라 교수가 함께 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오희균·황현식 교수팀은 지난 10년 이상 선수술을 시행하며 쌓은 연구 결과와 수술법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한 성공적 선수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정과와 구강악안면외과의사 간 원활한 협진의 중요성을 강조해 큰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